

(인터뷰)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기후위기 농도 전남, 혁신 기술로 농업 경쟁력 올리는 다양한 방법 만들어 나가겠다.”

토목 전문 본부장 부임 계기 더 나은 기술로 새로운 변화 기대

기사입력시간 : 2025/02/19 [23:35:00]

김대혁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사진)은 .취임일성으로 ‘ 농도 전남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다.“며 ” 엄중한 시기에 농어촌 공간에 농토목 기술로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어 농도 전남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취임 50 여일이 보냈고 최근 지사순방을 진행중 이다. 짧은 기간 업무를 파악하고 올해 사업방향을 확정지었다 큰 뜻을 품고 첫발을 내딛은 김 본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1. 큰 포부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각오 말한다면...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고령화와 지역소멸,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전남은 농어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에 농정 최일선 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도 크고 본부가 해야 할 역할 또한 중요하다.그렇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농 어업인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고, 혁신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고 실천하는데 주력하겠다.

2. 어떤 본부를 만드실 건지?

대표 농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남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국민의 주곡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본부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네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첫째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남형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자립형 공사로 정착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둘째로는 디지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력 축적과 신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는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우리 전남만의 고유한 특화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는 최근 극한 강우와 가뭄 심화 등으로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상시 대비하는 자세와 안전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할 생각이다.

3.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공사가 관리하는 1,052개의 저수지와, 방조제 및 담수호 77개소 등 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자립기반 강화에 힘쓰고, 농어촌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남도가 주관하는 330ha, 1조 3천억원 규모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에 공사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또한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과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연계사업과 체류형 쉼터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영광에서 계획중인 8,500ha규모의 “재해대응능력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역량을 집중하고, 저수지, 방조제 등 수리시설물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공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할 계획이다.



▲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은 .취임일성으로 ‘ 농도 전남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다.“며 ” 엄청난 시기에 농어촌 공간에 농토목 기술로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어 농도 전남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겠다“는 포부를 이날 밝혔다. ◎

4. 일을 추진하면서 원칙이 있다면 ?

첫째 무엇보다 안전이다. 지난해 우리본부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안전경영 체계 구축으로 ‘23년 대비 90일 이상 부상자가 78%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도에도 안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안전과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

둘째 공익적 내실경영 실천이다.공사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분야에 걸쳐 ESG 경영을 통해 공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을 적절히 조화롭게 혼합시키겠다. 본부는 기존 전남만의 특화 ESG 활동을 확대하고, 분야별 신규 영역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공익을 실천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5. 신임 본부장으로서는 구상하는 조직문화가 있는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고, 열정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조직문화를 이루겠다. 최근 MZ세대 증가로 신·구세대 교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세대간 상호이해 증진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공사 KRC-WAY로서 신뢰, 안전, 혁신을 실천하여 선진형 조직문화를 우리 본부에 정착시키겠다. 또한 노사 간, 세대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목표 부여를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는 조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6. 전남의 농어촌의 시급한 현안을 지적하고 대책을 언급해달라.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환의 시기,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농어촌 공간은 도시민이 다시금 찾게 될 미래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성장하고 있는 청년농은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의 활력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기술이 식량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안전한 밥상을 만들 것이다. 촌스러운 삶은 힙(Hip)한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모이고, 변화를 이끌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춘 곳이 우리 전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잠재력을 끌어내고 현실화하는게 우리 공사의 사명이다.

김 본부장은 행정 출신 전임 본부장들과는 다른 토목 전문가다. 기후위기에 직면해 귀로에 서있는 농도 전남의 농토목 현장에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재식 본부장은 69년 전남 보성군이 고향이다. 2003년 : 목포대학교 대학원(토목) 석사 졸업했고, 국가품질명장(2015년, 대통령 선정) 농어업토목기술사(2014년), 토목기사(1995년) 등 다수 자격이 있다. 기술안전품질원 진단기획부장과 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수자원관리부장을 거쳐 해남완도지사장 ,본사 수자원시설처장을 역임했다.

광주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